

안녕하세요, U 국에서 인사 드립니다.

1 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저희 부부는 U 국의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5 년 6 월 베델 교회 비전팀으로 처음 방문했던 Tashkent Joy Academy (TJA)의 총괄 교장으로 선임되어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매년 갱신해야 하는 비자이지만 TJA 에서의 시간을 시작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선후배, 동료 선생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전하며, 저희에게 열어 주신 시간의 현황과 기도 제목 전해 드립니다.

1. Tashkent Joy Academy (학교 시간)

TJA 는 유치원~12 학년 학생 156 명과 교직원 35 명 등 약 190 여 명의 X-ian 들과 이들의 가족을 신앙과 다음 세대 교육으로 묶어놓은 공동체입니다. 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더 많은 외국인 유입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공동체, 교육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School Board 에서 Head of School 에게 요청한 역할은

- 1) 국제학교에 적합한 학교 운영 체제 구축
- 2) MK, PK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 확장 이전 및 건물 건축 준비
- 3) ACSI (미국 학교 공인기관) Accreditation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 4)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원어민 교사 확충 등을 총괄하는 일입니다.

제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모두가 1 님의 일이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에 내어진 나귀처럼 그저 하나님만 믿고 맡겨진 일에 전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X-ian 교육과정 중 하나인 BCA (Bethel Classical Academy)의 Curriculum 을 TJA 에 도입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내 여러 교회와 X-ian School 들이 중앙아시아 복음화 및 현지인 목회자들의 시간에 보다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TJA 시간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 1) MK, PK 뿐 아니라 많은 X-ian 가정에서 자녀들이 TJA 에서 교육받기 원하지만 학생 수용조건을 초과하여 더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건물 신축이 추진 중인데 정부의 인허가와 재원 확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 2) 2024 년 첫 졸업생들이 호주, 일본, 대한민국, 우즈벡 등의 대학으로 진학한 이후 매년 대학진학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진학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내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 3) 현재 Kindergarten 부터 12 학년까지 학년별 Homeroom Teacher 와 방과후 활동을 이끌어 줄 봉사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필요한 현지인 선생님들과 학부모 봉사자가 채워지도록
- 4) 부름 받은 젊은 중기 사역자들이 TJA 원어민 교사로 헌신하며 사역지에서 훈련받고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 5) 26/27 School Year 에는 학교/교사/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PTA 모임을 자주 가지려고 하는데, 이 모임이 교무 행정적인 모임 보다는 1 님께 영광이 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 6)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진학 결과 보다는 초중고 12 년의 School Life 동안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길 소원하며 함께 하는 학교와 학부모들이 되도록

2. Tashkent Christian Seminary (신학교 사모)

U 국 유일의 공인 신학교인 TCS 는 26/27 학기에 약 25 명 내외의 목회자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신학 과목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의는 현지인 목회자들에 의해 러시아어로 진행되며, 일부 필수과목은 해외 신학 교수님 또는 사역자, 목사님을 초빙하여 1-2 주 집중과정으로 동시 통역 강의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TCS 외 다른 지하신학교에서 양성된 목회자는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몇 안 되는 공인 교회에서도 사모조차 할 수 없도록 통제되고 있습니다. U 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목회자가 해외 신학교에서 받은 Ph.D. 또는 M.Div. 학위가 있어야만 종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사역자들의 헌신과 기도로 양성된 목회자들은 사모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지하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곳 U 국의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모이 TCS 에 목회학 석사 과정을 개설하고 지하신학교 졸업생뿐 아니라 인접국 목회자들에게도 U 국 공인 자격증 (성직자 면허)의 취득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WTO 가입과 중앙아시아 중주국의 지위를 얻으려는 U 국의 정부는 지금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각국 공관장들을 독려할 정도로 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특히

친서방의 모습을 보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10 년전 외국 NGO 강제 추방사태로 위축된 사회활동을 회복하고 이 나라 영혼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타슈켄트한인교회의 후원으로 보수공사가 완료된 강의실 내부



Remodeling 공사비 마련을 위해 교회 중년 신학대학원생 기숙사 조감도 (완공후 예상도)

TCS 사회를 위해 교회 부탁드립니다.

- 1) 모집될 신학대학원생들이 1 님의 특별한 사명자로 무장될 수 있는 과정이 준비될 수 있도록
- 2) 한국과 미국의 신학대학 교수님들과 목사님들 많은 자원하시어 중요 과목은 반드시 개설될 수 있도록
- 3) 부르심받고 준비를 위해 타 지역에서 오는 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공간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데 이를 위한 재정이 충족되어 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도록
- 4) 현지인 목회자, 한인교회, 사회사 모두가 1 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오직 그분의 영광과 무슬림 이웃을 향한 사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후배, 동료 선생님, U 국 사회에 지속적인 교회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 부부도 각 본부와 각 사회를 위해 계속 교회하겠습니다.

서반석, 이루다 올림